■ 수업활동일지: 플립러닝(개별 제출)

교과목명	프로그래밍 실습2	분반	002
수업일자	2019.11.27	교수자명	박유현
이름	황진주	학번	20193148
팀명	3조		

■ 수업내용

```
#include <stdio.h>
#include <string.h>
#pragma warning (disable: 4996)
#define SIZE(value) (sizeof(value) / sizeof(value[0]))
int main() {
          FILE* reader = NULL;
          FILE* writer = NULL;
          reader = fopen("score.txt", "r");
          writer = fopen("score_result.txt", "w");
          if (reader == NULL || writer == NULL) {
                     printf("파일 열기 실패\n");
                     return 0;
          }
          printf("파일 열기 성공₩n");
          double scoreList[5] = { 0 };
          for (int i = 0; i < 6; i++) {
                     char name[10] = \{ 0 \};
                     fscanf(reader, "%s", name);
                     fprintf(writer, "%s\text{\text{\text{\text{\text{W}}}}t", name);}
          fprintf(writer, "평균₩n");
           int cnt;
          for (cnt = 0; 1; cnt++) {
                     char name[10] = \{ 0 \};
                      fscanf(reader, "%s", name);
```

```
if (feof(reader)) {
                      break:
           fprintf(writer, "%s\t", name);
           double sum = 0;
           for (int i = 0; i < SIZE(scoreList); i++) {
                      int score;
                      fscanf(reader, "%d", &score);
                      fprintf(writer, "%d\t", score);
                      scoreList[i] += score;
                      sum += score;
           sum /= SIZE(scoreList);
           fprintf(writer, "%.2lf\n", sum);
}
double sum = 0;
fprintf(writer, "평균₩t");
for (int i = 0; i < SIZE(scoreList); i++) {
          double avg = scoreList[i] / cnt;
           fprintf(writer, "%.2lf\t", avg);
           sum += avg;
fprintf(writer, "%.2lf", sum / SIZE(scoreList));
fclose(writer);
fclose(reader);
```

■ 수업 성찰(배운점·느낀점)

오늘은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처음에는 데이터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 지 fprintf("%s %d ~ %d %d",~); 식으로 짰다. "이게 될까?"라는 불확실한 마음으로 간소화하여 코드를 짜 봤는데, 되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입출력에 'f' 하나 붙은 것이고 입출력에서 입력받는 곳과 출력 받는 곳이 다를 뿐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를 너무 어렵게만 꼬아서 해결하려다 보니 이번 코드를 짜며 2번 정도를 모두 지우고 새로 짜게 된 것 같다. 새로운 배움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이 줄었다고 생각 했지만 아직 아주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겸손의 태도로 새로운 문제에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갖는 과제가 되었다.